

요구 분석을 통한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용 읽기 교재 개발 연구

이정희* · 장문정**

Abstract

Lee Junghee · Jang Moonjeong. 2015. 9. 30. **A Study on Developing Reading Textbooks for Korean Language Majors in Chinese Universities based on a Needs Analysis.** *Bilingual Research* 60, 229-253. Reading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majors in China is required to motivate and increase the interests of learners, improve reading skills, and allow students to acquire a positive attitude and enthusiasm in reading. In addition, the texts should reflect and share beliefs, knowledge, and values, and allow learners to indirectly experience and further apply them within the everyday communicative context. This can be meaningful as the goals of reading education enable learners to read and transcend in time and space, which in turn, will facilitate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future opportunities of related fields in Korea. Needs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current Korean major students and students who have graduated with aims of finding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ppropriate texts that reflect the learners' needs. The reading Textbooks for Korean majors should be equipped with feat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should consist of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texts in order to have knowledge and refinement Korean majors must have. In addition, the textbook should deal with not only cultural texts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he future workplace, but also the contents concerni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Kyunghee University·Kyunghee Universit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한국어교육), Korean language majors in China(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 Reading education(읽기 교육), Reading materials(읽기교재), Needs analysis(요구 분석)

* 제1저자, **제2저자

1. 서론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문법, 어휘, 발음과 같이 언어의 내용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언어 기능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문법이나 언어 내용적 요소와 관련된 교재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이정희, 2014).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미 목적의 학습자와 달리 방대한 분량의 교양 및 전공 서적을 섭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에 반영된 한국인의 신념·지식·가치 등을 공유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독과 같이 어휘나 문법 습득을 목적으로 한 읽기 수업으로는 전공자들이 갖추어야 할 교양과 지식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정독’이라는 교과 외에 ‘범독’ 혹은 ‘다독’과 같은 교과를 개설하여 읽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 그러나 중국 내 전공자들을 위한 다독 수업용 교재가 많지 않아 국내에서 개발된 읽기 교재를 번역 출판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전공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읽기 교재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들을 위한 맞춤형 읽기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내 한국어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

1)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독’과 ‘다독’이라는 용어는 중국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읽기 수업의 교과명이다.

으로 읽기 교재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독 수업용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고에서는 중국 대학 내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을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물 중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전수정(2004), 윤혜리(2006), 유해준(2008), 왕단(2011), 윤정아(2012), 정옥(2013)이 있다. 전수정(2004)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읽기 교육 방안 및 읽기 교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혜리(2006)는 학문 목적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주제, 텍스트 선정 및 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해준(2008)은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에 필요한 교재의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를 분류하여 대학 수학 목적용 한국어 교재의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왕단(2011)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읽기 교재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읽기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윤정아(2012)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대학 수학 능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읽기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과 읽기 전략을 활용한 교수요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정옥(2013)은 학문 목적 이공계 유학생을 위해 그들이 모국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이미 학습한 내용과 어휘를 한국어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텍스트 및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텍스트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읽기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이은주(2008), 박효훈(2011), 원

숙영(2014) 등이 있다. 이은주(2008)에서는 고급 단계 읽기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활동을 분석하여 교재의 활동 유형이 학문 목적 고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읽기 활동 유형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읽기 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활동인 ‘비평적 읽기’ 활동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박효훈(2011)은 학문 목적 읽기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읽기 후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학문 목적 학습자가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읽기 후 활동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읽기 후 활동이 없으므로 비판적 읽기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의 보완과 함께 학문 목적에 적합한 보다 다채로운 읽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원숙영(2014)에서도 학문 목적 읽기 교재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읽기 교재의 활동 유형을 읽기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읽기 전 활동에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나타난 반면 읽기 중 활동은 다루지 않은 교재가 분석 대상 교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읽기 후 활동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비판적 이해, 텍스트 구조의 인식, 자기 점검,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에 관한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텍스트와 관련한 연구로는 구민지(2011), 유혜숙(2014) 등이 있다. 구민지(2011)는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별도의 텍스트 난이도 측정 방법을 설정하고 학문 목적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읽기 텍스트의 기준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혜숙(2014)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 텍스트 난이도 요인이 실제로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어휘 요인과 배경 지식 요인은 텍스트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혔으나 문법 요인은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전략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현진(2009), 모뢰(2012), 김형복(2013), 왕역문(2014) 등이 있다. 김현진(2009)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교재에서 읽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읽기 전략 훈련을 위한 모형을 3단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모뢰(2012)는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들의 숙달도별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읽기 전략 사용 빈도와 읽기 능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숙달도별 읽기 전략 사용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읽기 교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형복(2013)은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전략 중심의 읽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 중심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방향과 단원 구성을 제시하였다. 왕역문(2014)은 학문 목적 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읽기 능력, 모국어 읽기 전략, 한국어 읽기 능력 및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어 읽기 전략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중섭(2002), 주옥파(2004) 등이 있다. 김중섭(2002)은 중국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수업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읽기 자료 및 읽기 자료 선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옥파(2004)는 중국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자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읽기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마련하고 읽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읽기 자료의 선정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읽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 본 연구들은 모두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목적과는 다른 읽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읽

기 교재 개발 방안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어 전공자, 즉 특수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김중섭(2002), 주옥파(2004), 왕단(2011)의 세 편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의 읽기 교육의 방향과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교육의 방향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부터가 엄밀히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다독 교과용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학습자 요구 분석

3.1. 설문 조사 및 구두 면담

3.1.1. 설문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읽기 및 다독 수업용 교재에 대한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중국 한국어과(조선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한국어과(조선어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과 중국 대학의 한국어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이메일과 현장 설문으로 진행하였는데 총 250부가 배포되었고 132부가 회수되었다.²⁾

2) 곡부사범대, 광둥외어외무대, 길림대, 난징대, 남경사범대, 대련민족대, 대련외대, 대외경제무역대, 동북사범대, 북경어언대, 북경외대, 북경제2외대, 사천외대, 산둥대, 산둥이공대, 상하이해양대, 서안외대, 연변대, 장춘광화대, 장춘대, 장춘이공대, 절강사범대, 절강월수외국어대, 중국전매대, 중국치치하얼대,

설문의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전체 10개의 문항이며, 영역은 크게 조사 대상자 기초 질문과 다독 수업 관련 문항, 다독 수업용 교재 관련 문항, 다독 수업을 위한 읽기 텍스트와 주제 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영역	내용	항목	번호
1	기초 자료	소속(재학/졸업), 성별, 직업	1~2
2	수업 수강 관련	정독 및 다독 수업 개설 현황, 수강 경험	3~5
3	다독 수업 및 교재 관련	다독 읽기 수업 만족도, 다독 수업용 교재 만족도, 다독 수업용 교재 개발의 요구도, 다독 수업용 교재 구성	6~8
4	읽기 텍스트 및 주제 관련	희망 텍스트 유형 및 주제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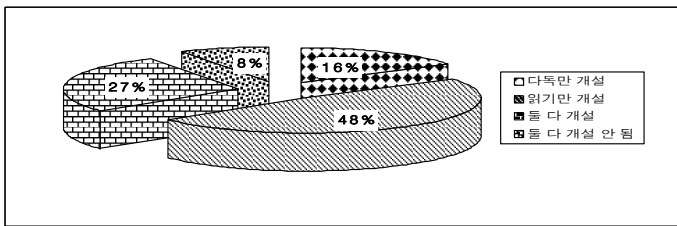
응답자는 현재 중국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이 71명(54%), 졸업생이 61명(46%)으로 재학생이 조금 더 많은 응답을 보였다. 졸업생의 경우 현재 공무원과 무역 관련 직종에 근무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문항 중 1, 2, 4 영역은 132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3 영역은 다독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5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실시 후 구두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구두 면담 대상자는 ‘2015년 중국 한국어과(조선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한국어과 재학생 가운데 지역, 학년, 숙달도 등을 고려하여 8명의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 조사가 끝난 7월 말에 실시하였다.3)

중남입업과학기술대, 중산대, 중앙민족대, 천진사범대, 천진외대, 청도이공대, 청도해양대, 하얼빈이공대, 화중사범대, 후룡강대, 후룡강외대, 기타
 3) 구두 면담에 참석한 학생들은 북경외대, 서안외대, 천진외대, 대외경제무역대, 북경제2외대, 산둥대, 연변대 한국어학과 2학년생과 중앙민족대 3학년에 재

3.1.2. 설문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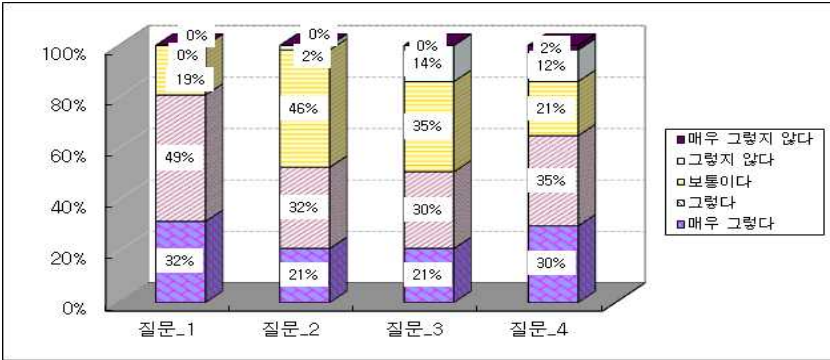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 정독 수업 및 다독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그림 1>과 같이 39개 대학의 한국어학과 중 한국어 정독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64개(48%)로 가장 많았고 정독과 다독 모두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36개(27%)로 뒤를 이었다. 또한 다독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1개(16%)로 나타났다. 둘 다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학교도 11개(8%)에 달했다. 읽기와 다독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 과목명이 ‘한국어’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그림 1> 한국어 정독 및 다독 수업 개설 여부

다음으로 다독 수업과 교재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다독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 57명의 대상자들에게 다독 수업을 통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질문1), 다독 과목의 수업 내용에 만족하는지(질문2), 다독 수업용 교재에 만족하는지(질문3), 다독을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질문4)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그림 2>와 같다.

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한 학생들이었다.



<그림 2> 한국어 다독 수업 만족도 및 요구도

먼저 ‘한국어 다독’ 과목이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1%에 이르러 학습자들은 여러 제재 및 주제,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읽기 교육 자료로 삼은 읽기 수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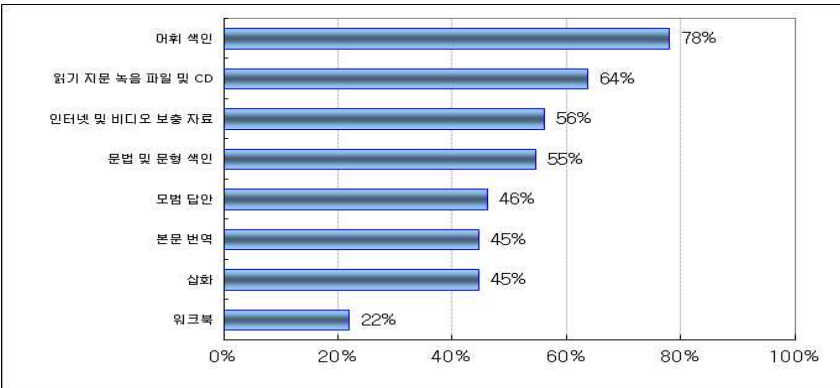
이러한 다독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구두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많고 이를 한국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읽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에 오니까 읽기가 다른 공부를 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글을 먼저 읽고 잘 이해해야 말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리고 취직을 해서 한국 사람과 일을 할 때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잘 알아야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00, 산동대 2학년)

학습자들이 ‘한국어 다독’ 수업 교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내용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과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⁴⁾

다음으로 다독 수업용 읽기 교재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포함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림 3> 다독 수업용 교재 구성 항목 요구 조사

보다 흥미롭고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다독 수업용 교재에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어휘 색인(78%), 읽기 지문 녹음 파일 및 CD(64%), 인터넷 및 비디오 보충 자료(56%), 문법 및 문형 색인(55%)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도 모범 답안, 본문 번역, 삽화에 대한 요구도 거의 과반수에 이르렀다.

인터넷 및 비디오 자료와 삽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읽기를 수행할 때 글에만 의존해서 텍스트를 읽을 경우 자신이 내용을 제대로 파

4) 응답자 중 몇몇의 학생들이 문법이나 어휘 연습으로 다독 수업이 진행되어서 재미가 없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정독과 다독 수업의 진행 방식이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두 면담에서 한 학습자는 1970년대에 출판된 교재로 한국어 읽기 수업을 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악하고 있는지 쉽사리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지로 제시되는 텍스트는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휘 색인, 읽기 지문 녹음 파일 및 CD, 문법 및 문형 색인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교실 내 수업에서는 읽기에 충실하되 자습 시 자신의 이해 정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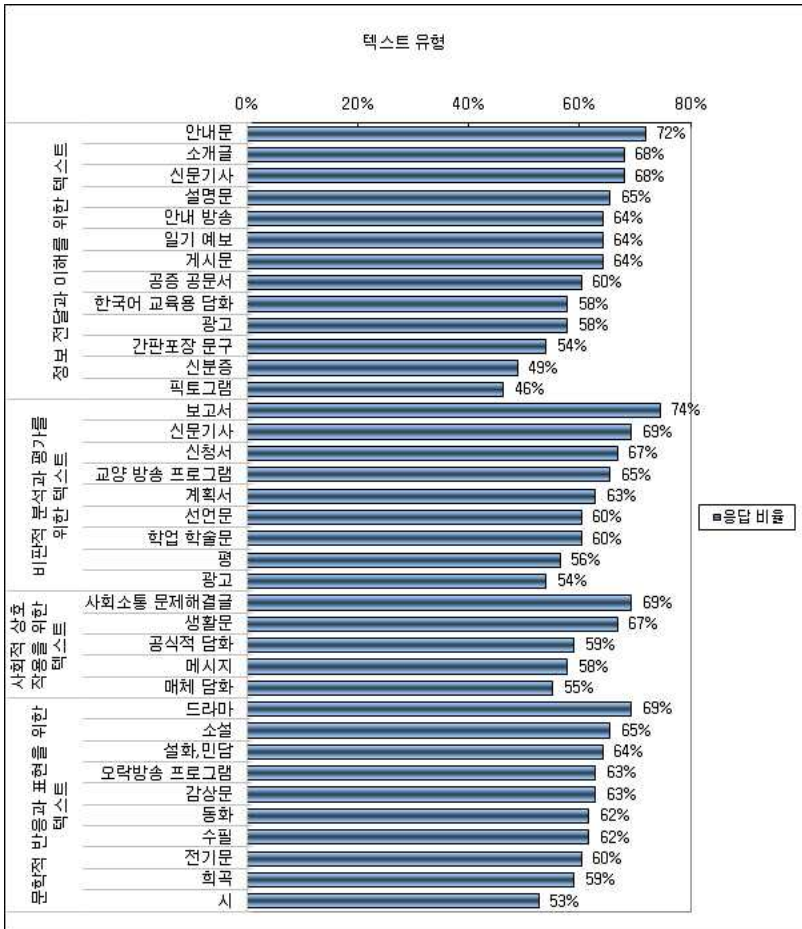
다음으로 텍스트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는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⁶⁾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 응답자들에게 개방형으로 쓰라고 한 후 이를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 제시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텍스트 분류표’에 따라 정리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서는 텍스트의 유형을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은 이 네 가지의 유형 모두에 대해 고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요구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고서 외에 신문 기사와 사회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글에 대해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양한 문학 장르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학 작품 가운데 ‘시가’와 같이 전통적인 문학 장르를 희망하고 있는 것 역시 중국 대학 내 전공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5) 이 외에 면담 과정에서 전공자들은 읽기의 경우 교실이 아닌 개인 학습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교재에 추천 도서 목록을 수록해 주기를 바랐다.

6) 개방형으로 질문한 텍스트의 유형과 주제를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 제시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텍스트 분류표’ 및 ‘주제 목록’에 따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 텍스트 유형 요구 조사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요구 역시 개방형으로 쓰게 한 후 이를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1)에 제시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주제 목록’에 따라 정리하였다.

주제 측면에서는 뉴스와 시사, 생활, 일과 직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먼저 뉴스와 시사라는 주제의 경우 텍스트 유형에서도 나왔듯이 주제 역시 정치·사회와 관련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높은 요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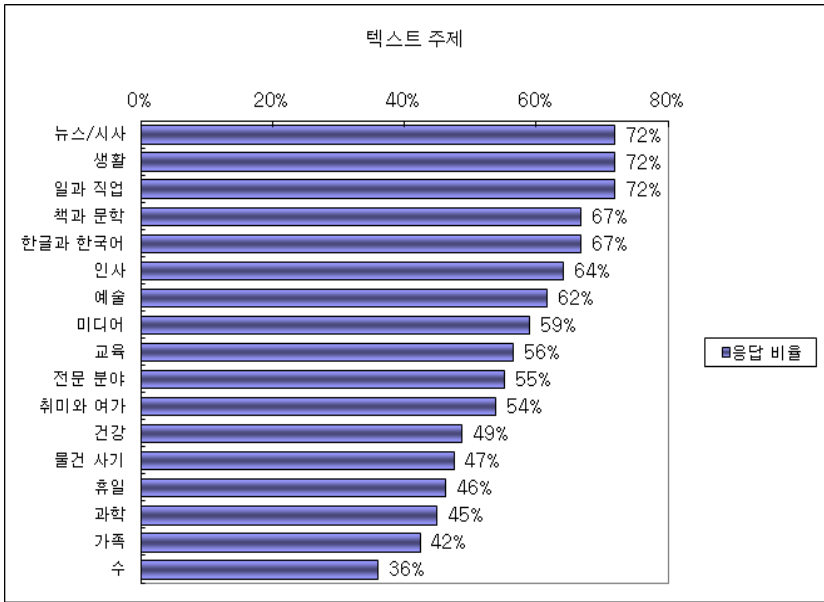
생활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응답을 한 것인지 구두 면담에서 질문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읽기를 많이 하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상생활, 대학 생활, 직장 생활 등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면 한국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미0, 대외경제무역대, 2학년)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이라는 주제가 높게 나온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문학 작품에 대한 요구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두 면담에 참가한 전공자들 역시 읽기 수업에서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기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면담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강조하였다. 읽기 책에 문학 작품 전체의 수록이 어렵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는 작품을 부분만 수록해 주어도 나머지 전체 작품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한국어 전공자라는 응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주제인 ‘책과 문학’,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특히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유래, 한국의 외래어 및 신조어, 유행어의 형성 원인 및 변화 과정, 한국의 관용표현 및 속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와 관련한 요구-한국의 드라마, 문화 콘텐츠, 한국 영화,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한국의 음악-가 다양하게 나왔으며 한국의 대학 생활과 한중교류에 대한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텍스트 주제 요구 조사

이러한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읽기 교재로 배우고 나면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관련된 문화에 잘 적응하여 향후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향후 개발해야 할 중국 대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공을 심화할 수 있는 한국의 언어, 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를 반영한 텍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전공자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문학작품을 제

시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개인적인 읽기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향후 한국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들의 읽기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가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휘·문법 색인, 지문 녹음 파일, 삽화 및 사진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 및 권장 도서 목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읽기 텍스트의 주제 및 유형을 통해 정치·사회와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4. 다독 수업용 교재 구성 방안

4.1.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김철(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과목을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⁷⁾

7) 중국의 교육부 학생모집 햇볕프로젝트 지정 플랫폼인 ‘陽光高考網’의 정보를 바탕으로 낸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하여 114개의 4년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52개의 대학(138개 전문대와 14개 4년제 대학)에 ‘응용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개의 대학에서 한국어학과와 응용한국어학과를 모두 개설하고 있으므로 총 252개의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허세람·이인순, 2013: 364).

<표 2>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수업 과목 분류표

종류	수업 형태	개설 상황
기초 과목	한국어 정독/초·중·고급 한국어/종합한국어	각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1학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개설한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과목 이름, 마치는 학년, 수업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다.
	한국어 열독, 한국어 범독, 한국어 독해, 한·중 번역	대부분의 한국어 학과에서 2학년 이상부터 개설한다. 보통 한 학기나 한 학년만 한다.
지식 확장 과목	한국 신문 열독/시사 한국어, 한국어 문학작품선, 무역 한국어, 관광 한국어, 호텔 경영한국어, 과학기술한국어, 실무한국어, 경제 무역 작품, 한국 문학사, 한국어 개론, 한국 역사, 한국 지리, 한국 문화, 한국 전통문화, 한국어회론, 한국 교육론, 한국어 발전사, 한국 민속, 한국 철학, 한국 언어학 개론, 중한문화비교, 한국 경제, 한국 기업 문화, 한자독음, 한국어 문법, 중한 문법 비교, 중한 어휘 비교 등	각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3학년 이상부터 선수 과목으로 개설한다. 보통 한 학기나 한 학년만 한다.

위의 분류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읽기 과목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교과목 설정 시 기초 과목으로 배정하는 핵심 과목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읽기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요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읽기 교재의 부재, 시간의 부족⁸⁾, 어휘, 문법, 번역에 치중된 수업 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읽기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렵고 학습자의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학년부터 한국어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의 요구에 기반 한 교재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설문 조사 결과 읽기 수업은 주당 1.53회, 1.63시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교수요목 설계

교수요목 설계에 앞서 중국 대학의 교육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먼저 중국 교육부에서 2009년에 반포한 ‘고등학교 외국어 비통용언어학과 규정’에 따르면 중국 대학교 외국어 비통용언어학과의 양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한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 기능을 장악하도록 양성해야 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고, 전공 외국어의 국가에 관한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분야의 지식을 파악하도록 양성해야 하며 다문화 간의 교제 능력을 갖고 외교, 국제 문화 교류, 기업 관리, 신문 출판과 외국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튼튼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갖고 본 전공 분야나 상관 학과에서 계속 연구하는 인재로 양성하도록 한다.

중국 정부의 교육 목표와 실제 중국 대학의 교육 목표가 얼마나 상관을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대표성을 지니며 읽기와 관련된 한국어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된 복단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았다.¹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중국 내 한국어학과는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지향하는 교육 목표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10) 복단대학교 한국어학과는 전공 필수로서의 읽기 과목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 있다.

과목명	학점	주당 시수	개설 학기	수업 기간
한국어다독 I	2	2	2	18주
한국어다독 II	2	2	3	
한국어다독 III	2	2	4	
한국어신문뉴스선독	2	2	7	

탄탄한 한국어능력과 폭넓은 과학문화지식을 갖추어 국제사무, 경제 무역, 문화, 신문방송, 출판, 교육, 학술연구, 관광 등의 영역에서 번역, 연구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선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언어, 문학 및 관련인문과학기술의 기초지식, 한국어능력을 습득하고 숙달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번역 능력, 제2외국어 응용능력과 창의 능력 및 독립적이고 업무처리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다.

즉 중국의 한국어학 전공자들은 한국의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지식을 읽기를 통해 신장시켜야 함을 이 교육 목표에서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중국 교육부의 정책과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전공하는 외국어의 언어, 문화 배경 지식을 전반적으로 신장하는 데 공통적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목표는 자칫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다소 심화된 전문 주제에 대한 이해나 자료 해석 등 기능적 측면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목표와 접목할 수 있는 학습자의 요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한국어 다독 수업에서 사용할 읽기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교실 밖 상황에서 한국어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드문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담긴 읽기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한국어의 입력을 증대시키고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결과와 한국어 전공 학습자의 읽기 교육의 목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¹¹⁾

11) 중국 대부분의 대학교가 한 학기당 16주~18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강의 시간은 15주 내외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1회 2시간을 설정하여 15단원으로 구성한다.

먼저,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배열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게 함으로써 주제와 관련된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주제와 관련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 및 소재라고 하더라도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읽기 자료의 생동감이 달라지므로 요구 분석 결과에서 나온 다양한 장르의 글을 접하게 함으로써 텍스트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텍스트 주제 및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목별 주제와 텍스트 선정

	주제	텍스트
한국어 다독1	대중문화, 여행, 건강, 여가, 일상 생활, 교통, 직업, 집, 대인관계, 음식, 스포츠, 경제활동, 인터넷, 대학생활, 과학 기술	감상문, 강연문, 광고문, 짧은 신문 기사, 보도문, 드라마 대본, 설명문, 수필, 안내문
한국어 다독2	결혼, 인물, 동식물, 가족, 범죄, 정치, 경제, 언어, 전통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문학과 삶, 다문화, 전쟁, 사고와 인식	감상문, 강연문, 논평, 다큐멘터리 대본, 보고서, 설명문, 설화, 수필, 시, 시나리오, 신문 기사, 연설문, 칼럼, 학술문
한국어 다독3	한국의 기업, 관습과 제도, 철학, 문학과 비평, 예술, 과학, 색채, 심리, 인생, 죽음, 직업, 건축, 기호와 상징, 역사, 시가	비평문, 사설, 서평, 설명문, 소설, 수필, 시, 시조, 가사, 신문 기사, 연설문, 칼럼, 학술문

강은국(2010)에 의하면 중국에서 비통용외국어학과 의 전공과정은 전공 기능 과정, 전공 지식 과정, 전공 관련 지식 과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전공 기능 과정에서는 언어 기능별 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한국어 다독1은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간단한 한국어 텍스트 읽기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선정하였다. 전공 지식 과정으로 해당 전공의 사회문화 및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단계인 한국어 다독2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재와 다양한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전공과 관련이 있는 전공 지식 과정인 한국어 다독 3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심리, 제도 등 추상적인 영역까지 아울러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4.3. 단원 구성 방안

단원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원의 구성 요소들이 해당 학습의 목표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업의 흐름에 맞추어 각각의 요소들이 배열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자습 및 자가 점검 가능성 역시 중요한 요건이므로 어휘 색인, 모범 답안 등의 보조적인 자료의 배열과 위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삽화,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고, 인지적 효과를 높이는 것 역시 단원 모형 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와 학습자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한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재 구성

- ① 머리말
- ② 일러두기
- ③ 차례
- ④ 교수요목
- ⑤ 단원 구성: 제1과 ~ 제15과
- ⑥ 모범 답안: 각 과에 포함된 연습 문제의 답을 모범 답안의 형태로 제공함.
- ⑦ 어휘 색인: 각 과의 어휘와 표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출

현한 단원과 쪽수를 함께 제시함.

- ⑧ 문법 및 문형 색인: 각 과의 대표적인 문법 및 문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 ⑨ 출전: 각 단원에 제시된 모든 원전의 출전과 쪽수를 밝힘.
- ⑩ 읽기 지문 녹음 파일 및 CD: MP3 녹음 파일 및 CD 녹음 자료를 제공함.
- ⑪ 추천 작품 목록¹²⁾

Nuttall(1982:171-172)은 읽기 자료가 지녀야 할 속성 중의 하나로 호소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읽기 자료가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³⁾ 인쇄가 잘 되어 있고 컬러 삽화가 들어 있어야 독자들이 쉽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읽기 자료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읽기 교재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흑백보다는 유색의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읽기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 및 사진 자료를 많이 삽입해서 학습자의 내용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록에도 모범 답안, 어휘 색인, 문법 및 문형 색인, 출전, 읽기

12) 윤여탁(2014:379-380)에서는 문헌적인 이론 연구,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조사와 통계 및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중국 내 한국문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13) Nuttall(1982:171-172)은 읽기를 위한 자료가 지녀야 할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호소성(appealing):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인쇄가 잘 되어 있고 색깔 있는 삽화가 들어 있어서 독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② 용이성(easy): 교재의 읽기 수준보다 더 쉬워야 한다.
- ③ 간결성(short): 내용이 너무 길면 읽기도 전에 싫증이 날 수 있다.
- ④ 다양성(varied): 내용 및 독자들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지문 녹음 파일, 추천 작품 목록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자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교실 밖의 환경에서 스스로의 독서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단원 구성

- ① 도입 읽기
- ② 본 읽기
- ③ 심화 읽기

단원 구성은 학습자의 흥미와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크게 ‘도입 읽기 → 본 읽기 → 심화 읽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도입 읽기는 본 읽기의 전 단계로 실제적인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통해 해당 단원에서 읽게 될 내용을 예측해 보고 중심이 되는 어휘 활동을 하는 읽기 전 단계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본 읽기는 어휘 제시를 시작으로 해당 어휘를 맥락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어휘 활동과 본격적인 텍스트 읽기로 구성된다.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텍스트의 길이는 학년별로 그들의 읽기 숙달도에 맞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적이고 한국적인 문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텍스트로 구성해야 한다. 끝으로 심화 읽기는 확장된 읽기 활동으로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다독 수업용 읽기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다독 수업용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교재로 읽기 수업을 받게 되면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관련된 문화에 잘 적응하여 향후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한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는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읽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면서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및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읽기 교수·학습 설계, 더 나아가 실제 읽기 수업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은국(2010). 대학교 본과 외국어 비통용어중학과 규범의 측면에서 본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조선)어교육 연구학회 2010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234쪽~244쪽.
- 교우박(2011). 중국의 한국어 교재 『정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민지(2011). 읽기 텍스트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쪽~48쪽.
- 김중섭(200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4쪽~67쪽.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철(2008).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한중인문과학

- 연구> 24,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75쪽~308쪽.
- 김현진(2009). 학문 목적 교재에서의 효율적인 읽기 전략 훈련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제5권 2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101쪽~128쪽.
- 김형복(2013). 전략 중심의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문화교육> 제7권 2호, 한국어문화교육학회. 55쪽~82쪽.
- 모퇴(2012).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읽기 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효훈(2011).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읽기 후 활동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88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71쪽~192쪽.
- 왕단(201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회고와 과제>, 한국문화사. 65쪽~93쪽.
- 왕역문(2014). 학문 목적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과 전략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숙영(2014). 고급 단계의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분석-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준(2008). 학문 목적 한국어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 - 내용 중심 언어 교육(CBLT)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9집, 중앙어문학회. 71쪽~90쪽.
- 유혜숙(2014). 읽기 텍스트 난이도 결정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2014).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 목록 선정 연구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0쪽~29쪽.
- 윤정아(2012).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수요목 구성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537쪽~564쪽.
- 윤혜리(2008).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8).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사용된 읽기 활동 유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14).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165쪽~197쪽.
- 전수정(2004).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2013).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교재 개발 방안 연구 : 기초학문으로서의 '물리학'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옥파(2004).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논설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5쪽~188쪽.
- Nuttall, C.(1982).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이정희(Lee Junghee)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전화번호: 02-961-0084
전자우편: iiekor@khu.ac.kr

장문정(Jang Moonjeong)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전화번호: 02-961-0911
전자우편: lupus@khu.ac.kr

접수일자: 2015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1일